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객원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젊은이 페이지 'YOUNG' 섹션을 운영합니다. 'YOUNG' 객원기자들은 뜨거운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스포츠를 위해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스포츠 덕후'들입니다. 마니아를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특목 튀는 아이디어와 발랄한 문체로 스포츠의 읽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청춘, 청춘을 만나다

WK리그 해설위원 권예은이 꿈꾸는 미래 "후배들 길잡이 되겠다"



권예은

패스파인더(Pathfinder). 길잡이, 개척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만큼 권예은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없다. 지난 2016년 말 축구 화를 뱐은 그는 2017 WK리그 해설위원으로 팬들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비시즌인 현재는 과천시 여자축구단 감독을 비롯해 한국여자축구문화진흥협회 대표직을 맡아 시즌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정리한 그는 이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바로 2016년 11월 첫 단추를 꿰 한국여자축구문화진흥협회다. '우먼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축구팬들에게도 다가가고 있다.

우먼그라운드의 탄생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년차 선수였던 시절, 부상 재활 도중 우연히 한체대 여자축구 동아리 FC천마 학생들을 알게 된 권예은은 이들과 WK리그 선수들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던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동료 선수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아마추어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축구를 사랑하지만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축구를 선물했다. 대회가 있으면 함께 보러 가고 축구도 알려주는 일을 5~6년 가까이 계속했다. 그러자 아마추어들이 WK리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오늘날 우먼그라운드의 초석이 되었다.

"은퇴할 때 후배들한테 너희들은 응원 받으면서 축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제 역할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놓는 거예요. 축구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찾고, 또 선수 출신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기다 보면 언젠가는 여자축구 인기가 많아지고 제 약속도 이뤄지지 않을까요?" 윤지영 대학생 명예기자 kks017@naver.com

“시드니, 최고의 순간” 여자농구 전설들의 추억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0년 시드니올림픽 4강 신화 주역들 여자농구 빛낸 레전드 'Great12' 선정 박정은 “대표팀 12명 모두가 하나였다”

1998년 출범한 WKBL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WKBL은 20주년을 맞아 여자농구를 빛낸 레전드 12인을 'Great12'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24일 올스타전을 통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현역인 박혜진과 임영희(이상 우리은행)를 제외한 10명의 Great12 멤버들 중 대부분의 선수들이 겹치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여자농구 역사 중 영광스러운 장면 중 하나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강 신화를 이룬 대표팀 출신이라는 점이다.

당시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의 시드니 올림픽 4강 신화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테니스 정현의 호주 오픈 4강 신화만큼이나 기억 같은 일이었다.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등 세계적인 여자농구 강호들을 연파하며 한국 여자농구의 실력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여자농구 세계랭킹 1위였던 미국을 상대로 전반을 2점차로 뒤지는 접전을 만들어내며 미국 대표팀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쿠바와의 조별예선 경기에서는 전주원이 올림픽 여자농구 역사상 최초로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세계 여자농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비록 3~4위전에서 브라질에 아쉽게 패하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여

자농구 대표팀이 보여준 수준 높은 경기력과 대표팀에 대한 헌신은 팬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

선수들 역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당시 대표팀 소속으로 경기에 참여했던 Great12 멤버들은 하나 같이 시드니 올림픽을 농구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다. 주장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던 정은순은 부상으로 브라질과의 3~4위전에 출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은순은 “내 엉덩이가 조금만 더 튼튼했어도 동메달은 우리 것이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전주원 우리은행 코치 역시 “시드니 멤버들은 모두 시드니 올림픽을 최고의 대회, 순간으로 뽑는다. 올스타전 Great12 행사 때 대기실에서 시드니 올림픽 대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1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대표팀 막내 뺨이었던 박정은은 “쟁쟁한 언니들과 함께 한 대회여서 더 기억에 남는다. 힘들다고 생각할 대회였는데 좋은 성과를 내서 기분이 좋았다. 당시 대표팀은 경기에 뛰든 안 뛰든 엔트리에 있던 12명 모두가 하나였다. 그때처럼 대표팀이 뿔뿔 뗠 적은 대표팀 생활 중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올해 여자농구대표팀은 2018 FIBA 여자농구 월드컵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연이어 치른다. 18년 전 시드니올림픽의 추억처럼, 2018년 여자농구가 국제 대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길 기대해본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유니폼 벗고도 여자농구 결을 지키는 전설들

시간이 흘러도 전설들과 여자농구의 '동행'은 계속되고 있다. WKBL은 20주년을 맞아 여자농구를 빛낸 12명의 전 현직선수를 Great 12로 선정했다. 'Great 12' 중 현역 선수들을 제외한 10명의 전설들은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선수 유니폼을 벗었다. 하지만 유니폼을 벗고도 전설들의 여자농구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박신자-박찬숙으로 이어지는 한국 여자농구의 국보급 센터 계승자였던 정은순은 농구공 대신 마이크를 잡았다. 2013년부터 KBS N SPORTS의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정은순의 영원한 라이벌 유영주는 코치와 해설위원을 오가며 활약 중이다. 2001년부터 국민은행 세이버스(현 KB스타즈)의 코치로 지도자생활을 시작한 유영주는 이듬해 WKBL 선수 출신 최초 감독 대행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2013년까지 SBS ESPN(현 SBS SPORTS)의 여자농구 해설위원 마이크를 잡았던 유영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 시즌 동안 KDB생명 위너스의 코치로 활약했다. 지난 박신자컵에서는 STN SPORTS 마이크를 잡고 유쾌한 입담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역시절 최고의 선수로 불린 전주원은 유니폼을 벗고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까지 현역으로 21시즌을 소화하고 은퇴한 전주원은

은퇴 후 신한은행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과 자리를 옮긴 뒤 현재까지 우리은행의 통합 5연패를 이끌며 지도 역할도 인정받았다.

'바스켓 퀸' 정선민은 현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2012년 은퇴를 선언한 정선민은 2014년 인현고등학교 남자부 코치로 선임되어 아마추어 무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부천 KEB 하나은행의 코치로 선임되며 WKBL 무대로 돌아온 정선민은 2016년부터 친정팀 신한은행의 코치로 활약 중이다.

삼성생명의 '윌링턴맨' 이미선은 삼성생명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1997년 삼성생명 입단 후 2016년 은퇴까지 20년간 한 팀에서 활약했던 이미선은 은퇴 후 1시즌 만에 삼성생명 코치로 돌아왔다. 코트를 잠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선수도 있다. 바로 '변코비' 변연하이다. 변연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도자 연수 중이다. 변연하의 목표는 여자선수 출신 최초 농구대표팀 감독이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전설들은 여전히 여자농구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었다. 여자농구를 향한 전설들의 헌신이 여자농구의 새로운 부흥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2000년 시드니올림픽 쿠바와의 예선에서 수비를 제치고 골밑으로 파고드는 정은순과 여자농구 전설들의 현재 모습. 우리은행 전주원 코치, 신한은행 정선민 코치, 삼성생명 이미선 코치(왼쪽부터). 사진제공 | WKBL

경륜·정정

경륜 강급자들 '매서운 겨울나기'

한파만큼이나 경륜 강급자들의 겨울나기도 매서운 추위에 휘둘려 있다. 예년에는 특선급에서 우수급으로, 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 내려온 선수들은 시속에서나 기량 면에서 기존 등급 선수들을 압도하며 곧장 상위등급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곤 했다. 하지만 올 시즌은 특별승급은 고사하고 입상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향 평준화된 선수들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대전방식 변경(금요일 독립대진 시행)으로 금요일 비슷한 기량의 선수가 편성되는 부분도 일조하고 있다.

우선 모든 강급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회차에 불과한 성적표이긴 하나 우수급의 윤현구, 박종현, 권정국은 모두 우승 혹은 준우승을 차지하며 무난한 출발을 보였다. 이들 세 선수가 선전하는 비결을 살펴보면 모두가 선행, 뒷허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윤현구는 특선급 한 회차만 뛰고 곧바로 강급되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창원 4회차 경주에 출전해 선행, 뒷허기만 3연승을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시속 면에서도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다시 한 번 특선



경륜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돼 강급자들이 예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륜경정사업본부

급 재진출의 청신호를 밝혔다.

반면 그 외 강급자들은 모두 연속입상 행진이 전부한 상태다. 특히 선발급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과거 선발급을 주름잡았던 정동원은 지난 광명 1회차 경주에서 우수급에서 보여줬던 플러다 니던 모습을 선발급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마크에만 안주하다 3차, 2차, 5차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임섭, 임영운 역시 첫날과 예선전인 둘째 날에 모두 고전했고 강자가 빠진 일요일경주에서만 우승을 차지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우수급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첫 회차를 순조롭게 풀어갔던 송현희는 광명 4회차

에 출전해 첫날 3차하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급기야 다음날엔 태만실격까지 당하며 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뿐 아니라 최성국, 노태경, 박지영, 황준하 등도 첫날과 둘째 날엔 선전했다가 결승전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인지도를 앞세워 짧게 승부를 보려다 양쪽 시속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경륜전문가들은 최근의 양상이 강급자 탓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선발급, 우수급 기량 것 없이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는 23기 신인들의 반란 아닌 반란이 강급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경륜 승부사' 이정구 씨는 "현재 모든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어 강급자들이 고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강한 체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들도 이런 결과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강급자들 역시 한 단계 높은 등급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만큼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꾸준히 훈련량을 늘리고 전지훈련 등으로 체력을 보강한다면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판 열혈강호' 23기 강호 6연승 돌풍

다음 회차 1·2위 유지 땀 특선급 승급



23기 강호

경륜 23기 신인 강호(본명 강동진, 31세, A1 반)의 돌풍이 심상찮다. 데뷔 6연승을 질주하며 특선급 특별승급까지 노리고 있다. 동갑내기인 20기 정종진의 역대 최다연승 도전과 함께 경륜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강호는 다음 회차에서도 1,2위 성적을 유지한다면 특선급으로 특별승급(3회차 연속 1,2위 성적 유지 특별승급)할 수 있다. 초고속 특별승급이다.

연승행진만큼 경기내용도 인상적이다. 강호가 거둔 6승 중 5승은 선승승부였다. 강호는 마지막 한바퀴를 알리는 타종이 울리면 선두로 나와

질주를 시작한다. 경주 중 선두에 위치한 선수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힘이 많이 든다. 경륜에서 선승승부가 어려운 것과 선두유도원 제도도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강호는 폭발적인 힘으로 선행하며 승리를 따냈다.

이러한 활약은 강호의 경륜 입문과 함께 예견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에 경륜 23기 수석졸업과 최우수상 수상 등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세라면 특선급으로 특별승급은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과정은 특선급에서의 활약이다. 특선급에는 현 경륜 최강자 정종진을 비롯해 강자들이 즐비하다. 강호가 특선급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정용운 기자

미사리 김정정 휴장기간 2월15일까지 연장 미사리 김정 휴장기간이 한파로 2월15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임시휴장을 15일까지 연장하고, 이후 휴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날씨상황을 확인한 후 결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경주 수면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휴장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정용운 기자